

경력직 노동력의 지역 간 이동에 관한 연구: 2008-2011년 고용보험통계를 중심으로

이정섭*

A Study on the Regional Labor Migration in Experienced Employees' Sector: based on the yearly statistics of employment insurance 2008-2011

Lee Chung Sup*

요약 :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보험통계를 이용하여 경력직 노동력 이동에 대해 16개 시도를 공간단위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전체 상용직과 일부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이들 중 매년 약 40-50%의 경력직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고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 경력직 노동력의 이동에 대해 첫째 전체 이동 근로자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진행하여 그 권역을 탐색하고, 둘째 타 시도로 이동하는 근로자를 추출하고 유출비와 유입비를 이용해 지역 간 이동의 연계와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이동권역은 지난 정부가 설정했던 5+2 광역경제권과 유사한 군집을 이루었지만, 지역 간 이동에 있어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나머지 시도에 탁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주요어 : 경력직 노동력, 노동력 이동, 고용보험, 군집분석, 지역 간 연계

Abstract : This study is the analysis on the labor migration between 16 provinces in experienced employees' sector by using the employment insurance statistics of 2008 to 2011. In wage workers of Korea, all of regular and some of temporary employees subscribe to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among these, about 40-50% career workers have moved their jobs every year. Targeting these, first I perform cluster analysis to explore the spatial boundaries of intra and inter-regional labor migration, and second measure the regional linkages extracting the inter-regional migrants. As results, the clusters of labor migration are similar to 5+2 Mega-regional Economic Zones. However, in the regional linkages between clusters, Seoul-metropolitan area has a great influence to other regions in inflow and outflow.

Key Words : experienced employee, regional labor migration, employment insurance, cluster analysis, regional linkage

1. 서론

노동력의 이동은 인구 이동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역 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에 있어 우선 노동력 이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행정구역별 인구, 경제활동인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및 지역별 고용조사(RES) 또는 최근의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KLIPS)을 비롯한 청년패널조사(YP),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등 패널자료를 활용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근로자의 직업을 위한 지역 간 노동이동 연구 자료로 활용할 때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정인수 2004).

즉 노동력 이동 연구에 필요한 O-D 자료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연구는 지역 간 노동력 이동의 O-D가 확인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통계를 이용하였다. 그렇지만 해당 자료가 모든 노동력 이동의 O-D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정인수(2004)는 노동력의 지역 간 이동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학교를 졸업하고 신규로 취업할 때 주소지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두 번째는 취업 도중에 일어나는 전직이 상이한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이직과 재취업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이러한 구분에서 고용보험통계에서 O-D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

에 한정되며, 학교를 졸업하고 생애 처음 고용보험가입을 가입하는 첫 번째 경우는 D는 확인되지만 O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제외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인의 노동이력에서 처음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의 단계, 즉 경력직의 노동이동에 한정하여 진행하는데, 이것은 분명 지역 간 노동력 이동을 분석함에 있어 이 연구가 가질 한계점 중 가장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다만 연간 취업자 중 경력직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에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대졸자직업이동경로, 고졸자취업진로, 청년패널조사 등을 활용한 학교로부터 노동 시장으로의 이행(from school to work)에 관한 최근의 활발한 연구에 비해 그 다음 단계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경력직 노동이동과 이력은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Fielding 1992, Conradson & Latham 2005, Findly 2009)을 고려한다면 일정 정도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시간적으로 2008년에서 2011년까지를 범위로 하여, 첫째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와 경력직 노동력이 차지하는 위상과 그것의 시도별 편차를 살펴보고, 둘째 경력직 노동력이 이동하는 주요 권역을 16개 시도를 단위로 탐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시도로의 이동만을 추출하여, 시도 및 권역 간 경력직 노동력 이동에 대해 그 연계 및 상호작용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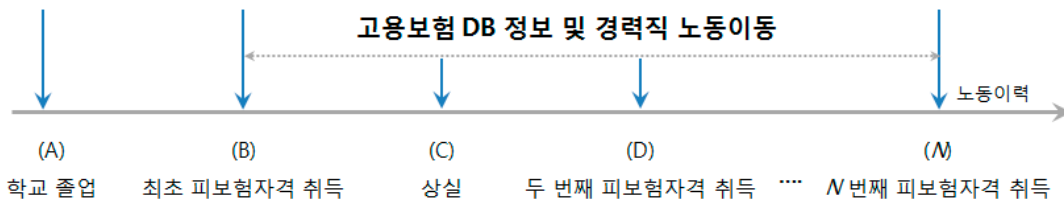


그림 1. 경력직 노동이동

출처: 황덕순·전병유·고선, 2004, 고용보험DB를 이용한 피보험자의 직장이동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p.3.

2. 노동 시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경력직 노동력의 비중

1) 고용보험 개요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고용보험 제도는 1995년 7월 1일 시행된 이래, 실업이라는 사회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그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의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65세 이상인 근로자, 1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1주간 15시간 미만 포함)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고용보험제도 실시 이후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그 추세를 살펴보면, 2008년 약 938만 명이었던 전국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1년에는 13.8% 증가한 1,068만 명으로, 같은 기간 전국의 경제활동인구가 약 3%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고용보험 적용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노동 시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중은 41.2% 남짓 수준이고, 전체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는 약 58.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임금근로자를 다시 종사상지위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919만 명 이상의 상용직은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있지만, 일용직과 임시직¹⁾은 676만 명 중 약 2.8% 정도만 가입하고 있다²⁾.

표 1. 고용보험 개요

사회위험	개시연도	가입 대상			보험료 부과기준 및 보험요율	급여제한 조건	관리기관 관리기관
		가입 제외	적용 제외				
실업	1995년 7월	• 1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근로자	• 65세 이상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공무원 • 가사노동자 •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자영업주 임의가입)	• 보수월액 기준 • 사업주 0.55% • 근로자 0.55%	180일 미만가입	근로복지 공단

출처: 최인덕, 2013, 고용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한국조세연구원, p.55.

2008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2,367만 명)				
실업자 (93만 명)	취업자 (2,274만 명)			
	비임금근로자 (679만 명)		임금근로자 (1,595만 명)	
	자영자 (556만 명)	무급가족종사자 (123만 명)	임시·일용직 (676만 명)	상용직 (919만 명)
	고용보험 적용사각지대 (1,336만 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938만 명)

그림 2.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규모에 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비중

출처: 최인덕, 2013, 고용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한국조세연구원, p.48.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우리 노동 시장 현실에 적용하면, 실제로는 1년 이상의 고용계약 또는 무기계약 임금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들이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 정도로 한정되지만, 상대적으로 임시·일용직 그리고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일자리를 매개로 주거이동을 병행할 개연성이 높은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 활용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보험통계연보'에는 매년 지역 간 경력직 노동력 이동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에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들을 16개 시도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해당 자료에서 고용보험을 상실한 이전 직장의 입지는 이동의 출발 시도지역, 다시 취득한 새 직장의 입지는 도착지로 간주할 수 있을 것

이며, 이를 기초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시도별 노동 시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

고용보험가입자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서울은 전국 대비 고용보험가입자의 비중이 33.9%를 차지하며, 경기도 20.7%, 인천 4.3% 등 수도권이 58.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같은 해 경제활동인구의 68.8%, 임금근로자의 94.1%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 평균 및 다른 시도의 비율과 비교하면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탁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2008-2011년 시도별 고용보험 가입자와 전국 대비 비중

(단위: 천 명, %)

	고용보험 가입자 수				전국 대비 지역별 고용보험가입자 비중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서울	3,299	3,329	3,470	3,615	35.2	34.5	34.3	33.9
부산	536	539	557	586	5.7	5.6	5.5	5.5
대구	311	324	339	356	3.3	3.4	3.3	3.3
인천	402	417	434	456	4.3	4.3	4.3	4.3
광주	184	192	202	210	2.0	2.0	2.0	2.0
대전	226	239	253	290	2.4	2.5	2.5	2.7
울산	246	247	258	268	2.6	2.6	2.5	2.5
경기	1,830	1,904	2,022	2,205	19.5	19.7	20.0	20.7
강원	181	193	201	211	1.9	2.0	2.0	2.0
충북	246	256	269	282	2.6	2.7	2.7	2.6
충남	345	364	398	406	3.7	3.8	3.9	3.8
전북	227	244	256	266	2.4	2.5	2.5	2.5
전남	248	263	269	279	2.6	2.7	2.7	2.6
경북	455	472	508	516	4.8	4.9	5.0	4.8
경남	580	597	618	645	6.2	6.2	6.1	6.0
제주	69	74	78	84	0.7	0.8	0.8	0.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2011, 고용보험통계연보.

표 3. 2008-2011년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및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률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용보험가입률 (%)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보험가입률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국	38.5	39.6	40.9	42.5	57.9	58.7	59.7	61.4
서울	64.4	65.7	67.0	68.8	90.0	91.7	92.9	94.1
부산	32.3	32.9	34.1	35.9	46.9	47.2	48.7	50.7
대구	26.2	27.0	27.8	29.3	39.4	39.8	39.8	41.7
인천	30.5	30.8	31.2	31.9	42.9	42.9	42.6	44.0
광주	27.7	28.6	29.3	30.3	38.9	39.9	40.9	41.7
대전	31.3	32.9	34.8	39.2	44.0	45.3	46.8	53.3
울산	45.2	45.5	46.6	48.0	60.4	60.0	60.0	61.4
경기	32.0	33.0	34.2	36.5	45.3	46.4	47.5	50.0
강원	26.5	27.8	29.3	30.5	44.6	44.4	45.0	47.2
충북	33.9	34.7	35.8	37.0	55.6	54.2	53.8	56.3
충남	34.6	36.8	39.7	39.7	59.3	63.4	65.7	63.8
전북	26.8	29.0	30.6	31.4	49.0	51.7	53.4	52.1
전남	26.8	28.4	29.8	30.9	56.2	55.6	56.3	59.3
경북	32.9	34.1	36.3	37.1	60.9	61.8	64.4	63.7
경남	37.1	38.1	39.2	39.9	59.7	59.7	59.9	60.9
제주	23.3	25.2	27.0	28.3	38.8	41.8	44.3	46.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2011, 고용보험통계연보/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3) 고용보험 경력직 노동력 이동의 규모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늘어나는 가입자들 중에서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즉 생애 노동이

력에서 처음 상용직 임금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이들보다 경력직 취득자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표 4. 2008-2011년 시도별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와 취득자 현황

(단위: 천 명, %)

연도 지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A)	당해 고용보험 취득자(B)	B/A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A)	당해 고용보험 취득자(B)	B/A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A)	당해 고용보험 취득자(B)	B/A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A)	당해 고용보험 취득자(B)	B/A
전국	9,385.2	4,838.9	51.6	9,653.7	5,177.1	53.6	10,131.1	5,601.4	55.3	10,675.4	5,947.0	55.7
서울	3,298.7	1,656.6	50.2	3,328.8	1,647.0	49.5	3,469.6	1,824.6	52.6	3,614.6	2,007.0	55.5
부산	536.5	299.4	55.8	538.9	312.1	57.9	557.3	324.6	58.2	586.1	352.1	60.1
대구	310.8	163.9	52.7	324.1	190.3	58.7	338.8	204.0	60.2	355.9	213.3	59.9
인천	401.5	217.4	54.1	417.1	240.2	57.6	433.8	248.9	57.4	455.9	251.7	55.2

광주	183.9	97.7	53.1	192.4	112.9	58.7	201.9	125.8	62.3	209.7	128.8	61.4
대전	226.1	113.7	50.3	238.5	132.9	55.7	253.0	144.0	56.9	289.8	146.5	50.6
울산	246.5	105.5	42.8	247.4	104.7	42.3	257.6	109.8	42.6	268.2	131.5	49.0
경기	1,830.3	943.7	51.6	1,903.7	1,027.9	54.0	2,021.8	1,124.5	55.6	2,205.5	1,173.2	53.2
강원	181.5	101.6	56.0	192.7	129.1	67.0	200.9	130.1	64.8	211.0	136.8	64.8
충북	245.8	128.4	52.2	256.4	146.3	57.1	269.3	160.1	59.5	282.5	167.1	59.2
충남	344.9	175.1	50.8	364.3	194.7	53.4	398.2	218.5	54.9	406.4	226.7	55.8
전북	227.2	125.5	55.2	244.0	151.8	62.2	255.8	157.6	61.6	266.2	161.6	60.7
전남	247.7	135.2	54.6	262.5	156.0	59.4	269.2	157.4	58.5	279.1	165.7	59.4
경북	454.7	218.7	48.1	471.9	244.0	51.7	507.8	276.4	54.4	516.2	282.4	54.7
경남	580.2	318.8	54.9	597.2	344.7	57.7	618.1	352.4	57.0	644.6	356.4	55.3
제주	69.0	37.6	54.5	73.9	42.4	57.4	77.9	42.7	54.8	83.7	46.1	55.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2011, 고용보험통계연보.

표 5. 2008-2011년 시도별 고용보험 취득자 중 신규와 경력직 취득자 현황

(단위: 천 명, %)

연도 지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A)	고용보험 경력직 취득자 (B)	B/(A+B)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A)	고용보험 경력직 취득자 (B)	B/(A+B)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A)	고용보험 경력직 취득자 (B)	B/(A+B)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A)	고용보험 경력직 취득자 (B)	B/(A+B)
전국	1,091.1	3,747.8	77.5	1,218.5	3,958.5	76.5	1,073.5	4,527.9	80.8	1,102.7	4,844.3	81.5
서울	422.6	1,234.0	74.5	418.7	1,228.3	74.6	402.2	1,422.3	78.0	443.4	1,563.7	77.9
부산	64.9	234.5	78.3	72.1	240.0	76.9	58.7	265.9	81.9	61.8	290.3	82.5
대구	37.3	126.6	77.2	46.9	143.4	75.4	38.8	165.2	81.0	39.1	174.2	81.7
인천	41.4	175.9	80.9	48.5	191.7	79.8	39.6	209.3	84.1	38.3	213.4	84.8
광주	23.4	74.4	76.1	30.7	82.2	72.8	26.4	99.3	79.0	25.0	103.8	80.6
대전	27.2	86.4	76.1	33.5	99.4	74.8	28.3	115.8	80.4	27.8	118.7	81.0
울산	19.7	85.9	81.4	20.5	84.1	80.4	17.1	92.7	84.4	19.3	112.3	85.3
경기	189.7	754.0	79.9	219.7	808.2	78.6	194.9	929.6	82.7	197.0	976.2	83.2
강원	23.7	77.9	76.7	33.5	95.6	74.0	23.4	106.7	82.0	23.4	113.5	82.9
충북	24.7	103.7	80.8	30.4	115.9	79.2	26.3	133.8	83.6	26.0	141.1	84.4
충남	40.7	134.4	76.8	44.6	150.1	77.1	42.4	176.1	80.6	38.4	188.4	83.1
전북	29.5	96.0	76.5	39.7	112.1	73.8	30.6	127.0	80.6	27.8	133.8	82.8
전남	30.3	104.9	77.6	40.7	115.2	73.9	29.3	128.1	81.4	27.0	138.7	83.7
경북	45.3	173.4	79.3	57.8	186.2	76.3	51.9	224.5	81.2	47.3	235.1	83.2
경남	60.9	257.9	80.9	69.5	275.2	79.8	54.1	298.3	84.7	52.2	304.3	85.4
제주	9.7	27.8	74.1	11.5	30.9	72.8	9.4	33.3	78.1	9.2	36.9	8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2011, 고용보험통계연보.

당해 연도 가입자가 51.6-5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당해 연도 가입자 중에는 경력직 취득자는 표 5처럼, 같은 기간 동안 77.5-81.5%를 차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어림잡아 매년 경력직 노동자 10명 중 4명 내지 5명 정도의 이동, 즉 이직과 재취업, 또는 전직이 발생하고 있다³⁾.

3. 경력직 노동력의 이동 권역

1) 경력직 노동력 이동의 군집분석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보험통계연보 자료의 지역 간 경력직 노동력이동을 4개년 합계하여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해당 표의 가로 행은

원래 직장의 입지,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지역에 해당되고, 세로 열은 새로운 직장의 입지와 고용보험 가입지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해당 표는 지역 간 경력직 노동력이동에 있어 행은 출발지이고 열은 도착지로서, i 지역에서 j 지역으로 이동한 경력직 노동자 수 $t_{i \rightarrow j}$ 를 원소로 하는 O-D 행렬이 된다.

이와 같은 O-D 행렬을 통해 경력직 노동력의 16개 시도 간 상호작용 또는 시도 간 연계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O-D 행렬을 이용한 지역 간 상호작용 분석은 유동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요인 분석(factor analysis)과 유동권역의 구분을 위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등이 탐색적인 목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데(이종상, 2000), 이 연구에서는 16개 시도를 공간단위로 경력직 노동력이동의 권역분석을 위해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종

표 6. 2008-2011년 시도 간 경력직 노동력 이동자 수 누계

(단위: 천 명)

출발지 도착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3,895.8	94.9	49.1	125.6	32.0	63.4	22.8	727.1	41.8	48.4	67.6	36.0	28.6	52.5	61.1	13.1
부산	96.0	728.4	8.9	5.5	1.8	4.1	19.9	26.0	2.0	2.6	4.5	2.2	5.1	12.9	99.0	1.9
대구	50.2	8.3	423.9	2.2	1.1	3.1	3.6	17.1	1.4	2.0	2.8	1.1	1.0	71.4	11.1	0.7
인천	137.0	5.6	2.5	463.6	2.8	3.7	1.8	119.8	4.1	5.0	10.9	4.4	4.1	5.0	5.3	0.9
광주	33.1	2.2	1.2	3.0	239.9	2.9	0.5	15.7	0.8	1.2	2.8	6.4	40.8	1.3	1.9	0.7
대전	67.4	6.5	4.4	3.7	4.2	241.1	1.2	25.3	2.3	14.0	26.8	5.1	2.2	4.5	3.8	0.7
울산	26.5	22.8	4.7	1.9	0.6	1.2	253.0	9.3	1.1	1.5	2.5	2.0	2.6	16.7	22.1	0.3
경기	805.8	26.4	19.3	121.8	15.6	24.2	8.8	2,144.1	30.0	40.8	70.6	21.5	17.5	31.8	28.0	4.6
강원	43.4	2.1	1.4	4.5	0.7	1.9	1.0	30.0	280.9	5.5	3.5	1.4	1.3	4.1	2.8	0.8
충북	50.7	2.9	2.5	5.2	1.1	13.4	1.5	40.8	5.6	330.0	16.4	2.7	1.8	6.7	3.8	0.5
충남	77.8	5.1	3.5	12.4	2.6	28.2	3.1	74.3	4.1	16.6	373.2	9.3	4.7	9.5	7.1	0.7
전북	38.7	2.9	1.1	4.7	6.6	5.0	2.5	23.8	1.6	2.7	9.4	345.3	8.3	2.4	3.9	0.8
전남	34.7	6.0	1.2	4.8	42.7	2.1	3.1	21.7	1.6	1.8	4.8	8.2	329.7	3.8	9.4	1.0
경북	56.3	13.5	71.3	5.0	1.4	4.0	16.5	31.9	4.0	6.1	8.1	2.5	3.9	563.4	18.3	0.7
경남	68.1	106.3	13.5	5.9	2.2	3.6	22.3	28.7	3.0	3.8	6.5	3.6	8.1	18.2	817.1	1.4
제주	14.3	2.0	0.6	1.0	0.6	0.5	0.4	5.1	0.9	0.5	0.7	0.6	0.9	0.8	1.2	97.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08-2011, 고용보험통계연보.

상(2012)에 따르면 권역 설정에 있어서 요인분석은 연구기법상의 한계가 존재하고 군집분석은 데이터의 변수화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간의 유사성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통행량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통행량은 i, j 지역 간 이동량 절대치가 아닌, 전체에서 이동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한다.

우선 O-D 행렬에서 i 지역을 출발하여 j 지역으로 도착한 값과 그 역의 값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동량 비율 t_{j-i} 를 원소로 하는 비대칭 O-D 행렬을 만들고, 다시 $T_{ij}=(t_{i-j}+t_{j-i})/2$ 로 변환한 대칭행렬을 작성하였다.

$$T_{ij} = \frac{(t_{i-j} + t_{j-i})}{2}$$

t_{i-j} = i 지역 전체 경력직 노동력 중 j 지역으로 이직한 노동력 비율
 t_{j-i} = j 지역 전체 경력직 노동력 중 i 지역으로 이직한 노동력 비율

동력 비율

그리고 우리나라 16개 시도 간 인구와 경력직 노동력 규모의 큰 편차로 때문에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원소를 가지는 행렬을 작성하고 군집분석을 진행하였다.

$$X_{ij} = \frac{T_{ij}}{\sqrt{LP_i + LP_j}}$$

LP_i = i 지역 전체 경력직 노동력 규모

LP_j = j 지역 전체 경력직 노동력 규모

2) 경력직 노동력 이동의 권역

군집분석은 SRC-Star과 SPSS 18 패키지를 이용하였고, 분석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먼저 군집을 형성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지역이다. 그 다음으로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순으로 군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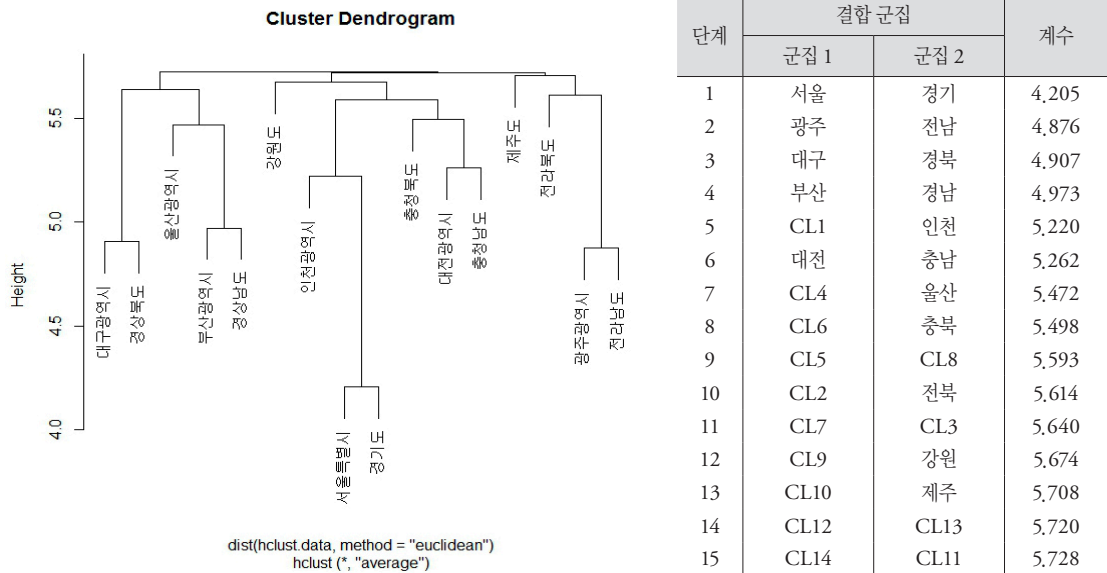


그림 3. 경력직 노동이동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이루는데 해당 군집들은 광역시가 주변의 도 지역과 군집을 형성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천은 첫 번째 군집이었던 서울-경기 지역과 군집을 이루고, 대전은 충남, 울산은 부산-경남과 군집을 형성하였다. 광역시와 떨어져 있는 충북은 대전-충남과 군집을 이루는데 해당 군집은 다음 단계에서 수도권과 군집을 형성하고, 마찬가지로 광역시와 이격된 전북, 강원, 제주는 각각 광주-전남, 수도권, 호남권과 군집을 형성하였다. 이후 단계에서는 광주-전남-전북-제주의 호남권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이 결합된 영남권이 최종적으로 수도권과 묶이고 있다.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16세 시도 경력직 노동력 이동의 권역은 7개 광역시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도 지역 간에 우선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이후 단계에서 결합되는 권역은 지난 정부가 국토정책의 근간으로 설정했던 5+2 광역경제권, 즉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대전-충남-충북의 충청권, 광주-전남-전북의 호남권, 부산-경남-울산의 동남권, 대구-경북의 대경권, 및 강원권, 제주권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광역경제권 사이에는 강원권과 충청권은 수도권과, 제주권은 호남권 그

리고 대경권과 동남권이 상당히 밀접한 상호작용과 연계를 보였다.

4. 경력직 노동력의 지역 간 이동

다음으로 경력직 노동력의 권역 또는 지역 간 이동과 그 상호작용 및 연계의 크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앞장의 군집분석 과정에서는 같은 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력직 노동력 이동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다른 시도로 이동한 노동력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같은 시도 내의 경력직 노동력 이동에 대해 첫 번째 이동자를 기준(O-D)으로, 두 번째 일자리를 기준(D-O)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림 4와 같이 16개 시도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편차가 존재했다.

그림 4의 O-D 비율은 해당 지역 일자리를 떠난 노동력 중 다시 같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은 노동력 비율을, D-O 비율은 해당 지역에 채용된 일자리 중에서 같은 지역 출신의 노동력으로 채용 비율을 의미한다. 시도별로는 제주와 전북은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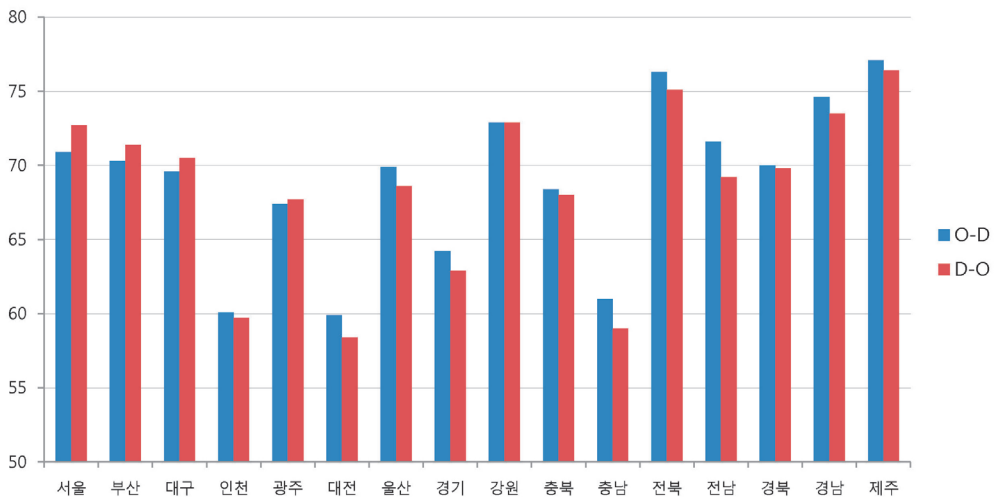


그림 4. 2008-2011년 동일 시도 내 경력직 이동 비율(%)

기준 모두에서 75% 이상을 나타냈지만, 반면 대전, 충남, 인천 등은 60% 안팎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경력직 노동력의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1) 경력직 노동력의 시도별 유출과 유입

경력직 노동력의 지역 간 이동에 있어서 어느 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 얼마나 상호작용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출발지 기준의 유출비 행렬과 역으로 도착지를 기준으로 한 유입비 행렬을 작성하였다.

$$\text{유출비} = \frac{x_{ij}}{\sum x_{ij} - x_{ii}}, \text{유입비} = \frac{x_{ji}}{\sum x_{ji} - x_{ii}}$$

먼저 유출비 행렬에서 각 원소는 출발지 *i*지역에서 도착지 *j*지역으로 이동한 경력직 노동력을

분자로 하고, 분모는 *i*지역 전체 경력직 노동력 이동 중 동일 지역 내의 이동을 제외한 값으로 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행렬의 각 원소값은 *i*지역을 떠난 경력직 노동력 중 *j*지역에 도착한 노동력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의미하고, 세로 열의 합은 100%로 정규화된다. 한편 가로 행의 합은 각 지역의 지역 간 경력직 노동력 이동을 100으로 보았을 때, *j*지역에 유입되는 정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16개 시도 × 100(%)에 대한 각 지역의 유입비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유입비 행렬은 도착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행렬의 각 원소값과 열의 합, 행의 합은 유출비 행렬과 역의 의미가 가지게 된다.

2) 경력직 노동력 이동의 지역 간 연계

유출비 행렬을 통해 유입비중을 그리고 유입비

표 7. 2008-2011년 시도 간 경력직 노동력 유출비(%) 행렬

출발지(i) 도착지(j)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입 비중
서울		32.8	28.3	43.8	28.9	39.2	22.9	63.6	41.6	32.6	30.0	33.8	23.6	23.2	23.1	47.6	515.1
부산	6.5		4.7	1.8	1.9	3.8	19.7	2.1	2.0	1.9	2.0	2.5	4.1	5.5	36.0	6.8	101.2
대구	3.4	3.0		0.8	1.0	2.6	4.1	1.5	1.4	1.6	1.3	1.0	0.8	29.3	4.6	1.9	58.2
인천	8.6	1.9	1.3		2.6	2.2	1.6	9.6	4.3	3.4	4.8	4.1	3.3	2.0	2.0	3.2	54.8
광주	2.2	0.6	0.6	0.9		2.4	0.6	1.2	0.7	0.7	1.0	5.8	29.1	0.6	0.7	2.1	49.1
대전	4.3	1.4	1.8	1.2	2.5		1.1	1.9	1.8	8.6	10.9	4.4	1.4	1.6	1.2	1.7	45.9
울산	1.6	6.8	2.0	0.6	0.5	0.7		0.7	0.9	1.0	1.2	2.2	2.1	6.8	7.6	1.2	35.8
경기	49.7	8.9	9.6	38.3	13.7	14.7	8.0		28.7	26.3	28.7	20.8	14.8	13.1	9.7	16.9	301.9
강원	2.9	0.7	0.8	1.3	0.7	1.4	0.9	2.4		3.6	1.6	1.4	1.1	1.6	1.0	2.8	24.1
충북	3.3	0.9	1.1	1.6	1.0	8.1	1.3	3.2	5.2		6.4	2.4	1.2	2.5	1.3	1.6	41.2
충남	4.6	1.6	1.6	3.5	2.4	15.6	2.2	5.6	3.4	10.5		8.2	3.3	3.3	2.2	2.4	70.4
전북	2.5	0.8	0.6	1.4	5.6	3.0	1.7	1.7	1.4	1.7	3.6		5.6	1.0	1.2	2.0	33.7
전남	2.0	1.7	0.6	1.3	35.7	1.3	2.2	1.4	1.2	1.1	1.8	7.3		1.6	2.7	3.1	65.0
경북	3.6	4.4	40.3	1.6	1.1	2.6	14.4	2.5	3.9	4.3	3.7	2.1	2.6		6.2	2.7	95.9
경남	4.2	33.9	6.3	1.7	1.7	2.2	19.1	2.2	2.7	2.4	2.7	3.4	6.4	7.5		3.9	100.3
제주	0.9	0.7	0.4	0.3	0.6	0.4	0.3	0.4	0.7	0.3	0.3	0.7	0.7	0.3	0.5		7.4

표 8. 2008-2011년 시도 간 경력직 노동력 유입비(%) 행렬

도착지(j) 출발지(i)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출 비중
서울		30.9	26.5	40.9	27.6	39.3	20.9	60.8	40.1	31.7	28.4	33.6	21.9	21.8	21.9	45.4	491.6
부산	6.0		4.8	1.8	1.5	2.5	18.3	2.2	2.0	1.7	1.9	2.1	3.9	5.3	35.5	6.7	96.2
대구	3.1	2.7		0.7	1.0	1.9	3.3	1.4	1.4	1.3	1.2	1.0	0.8	29.6	4.0	2.4	55.9
인천	8.6	1.8	1.4		2.4	2.3	1.7	10.0	3.9	3.3	4.6	4.1	3.1	2.1	1.9	3.0	54.0
광주	2.1	0.7	0.6	1.0		1.8	0.5	1.3	0.7	0.8	1.2	6.0	31.2	0.5	0.7	2.4	51.5
대전	4.2	2.1	2.4	1.2	3.6		1.1	2.1	2.2	9.2	11.3	4.8	1.7	1.8	1.4	2.3	51.3
울산	1.7	7.4	2.6	0.6	0.6	0.8		0.8	1.0	1.0	1.0	1.8	2.0	6.9	7.9	1.2	37.2
경기	50.4	8.6	10.4	39.7	13.4	15.0	8.0		28.8	26.8	29.7	20.1	13.4	13.2	10.0	16.0	303.4
강원	2.7	0.7	0.8	1.5	0.6	1.2	0.9	2.5		3.6	1.5	1.3	1.0	1.7	1.0	2.7	23.6
충북	3.2	1.0	1.3	1.7	0.9	8.3	1.4	3.4	5.3		6.9	2.5	1.3	2.8	1.4	1.7	43.1
충남	4.9	1.7	1.9	4.0	2.3	17.5	2.9	6.2	3.9	10.9		8.7	3.6	3.9	2.5	2.4	77.4
전북	2.4	0.9	0.6	1.5	5.7	3.1	2.3	2.0	1.5	1.8	4.0		6.4	1.0	1.4	2.9	37.4
전남	2.2	1.9	0.7	1.6	36.8	1.3	2.8	1.8	1.5	1.2	2.0	7.7		1.6	3.4	3.5	69.9
경북	3.5	4.4	38.5	1.6	1.2	2.5	15.1	2.7	3.8	4.0	3.4	2.3	3.0		6.6	2.5	95.0
경남	4.3	34.6	7.3	1.9	1.9	2.2	20.5	2.4	2.9	2.5	2.7	3.4	6.2	7.5		4.9	105.2
제주	0.9	0.7	0.3	0.3	0.5	0.3	0.3	0.4	0.8	0.3	0.3	0.6	0.7	0.3	0.4		7.3

행렬을 통해 유출비중을 함께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노동력 이동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지이자 공급지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광역시 중 대전과 도 단위에서 제주의 경우, 해당지역을 떠난 경력직 노동력의 39.2%와 47.6%가 서울에서 재취업을 하였고, 반대로 해당지역에 채용한 경력직 노동력의 39.3%, 45.4%가 서울에서 이동한 이들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체 경력직 노동력의 지역 간 이동에서 서울은 유입에서는 약 32.2%(=515.1÷1,600×100), 유출에서는 30.7%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유입 18.9%, 유출 19.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을 합친 수도권은 유출, 유입 모두에서 약 5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중에서는 부산, 경남, 경북이 유입, 유출에서 각각 6.3% 내외의 비중을 나타내지만, 수도권에 비해 그 격차는 현저

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비중은 각 시도별 경력직 노동력의 유출과 유입의 연계에서도 확인된다. 16개 시도별로 경력직 노동력의 주요 유출과 유입 지역을 상위 3개 순위로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수도권 내의 서울-인천-경기가 상호 밀접한 지역적 연계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경력직 노동력이 유출되는 지역과 유입되는 지역을 살펴보았을 때, 서울과 경기도가 모두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제외하면 서울, 경기도가 유출과 유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에서도 서울과 경기도는 차하 순위지역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상의 시도별로 유출비와 유입비를 산술평균하여 서울과 수도권이 경력직 노동력의 지

표 9. 2008-2011년 시도별 경력직 노동력 이동의 주요 유입과 유출 지역

	주요 경력직 노동력 유출 지역 (%)						주요 경력직 노동력 유입 지역 (%)					
	1순위 지역		2순위 지역		3순위 지역		1순위 지역		2순위 지역		3순위 지역	
서울	경기	(49.7)	인천	(8.6)	부산	(6.5)	경기	(50.4)	인천	(8.6)	부산	(6.0)
부산	경남	(39.9)	서울	(32.8)	경기	(8.9)	경남	(34.6)	서울	(30.9)	경기	(8.6)
대구	경북	(40.3)	서울	(28.3)	경기	(9.6)	경북	(38.5)	서울	(26.5)	경기	(10.4)
인천	서울	(43.8)	경기	(38.3)	충남	(3.5)	서울	(40.9)	경기	(39.7)	충남	(4.0)
광주	전남	(35.7)	서울	(28.9)	경기	(13.7)	전남	(36.8)	서울	(27.6)	경기	(13.4)
대전	서울	(39.2)	충남	(15.6)	경기	(14.7)	서울	(39.3)	충남	(17.5)	경기	(15.0)
울산	서울	(22.9)	부산	(19.7)	경남	(19.1)	서울	(20.9)	경남	(20.5)	부산	(18.3)
경기	서울	(63.6)	인천	(9.6)	충남	(5.6)	서울	(60.8)	인천	(10.0)	충남	(6.2)
강원	서울	(41.6)	경기	(28.7)	충북	(5.2)	서울	(40.1)	경기	(28.8)	충북	(5.3)
충북	서울	(32.6)	경기	(26.3)	충남	(10.5)	서울	(31.7)	경기	(26.8)	충남	(10.9)
충남	서울	(30.0)	경기	(28.7)	대전	(10.9)	경기	(29.7)	서울	(28.4)	대전	(11.3)
전북	서울	(33.8)	경기	(20.8)	충남	(8.2)	서울	(33.6)	경기	(20.1)	충남	(8.7)
전남	광주	(29.1)	서울	(23.6)	경기	(14.8)	광주	(31.2)	서울	(21.9)	경기	(13.4)
경북	대구	(29.3)	서울	(23.2)	경기	(13.1)	대구	(29.6)	서울	(21.8)	경기	(13.2)
경남	부산	(36.0)	서울	(23.1)	경기	(9.7)	부산	(35.5)	서울	(21.9)	경기	(10.0)
제주	서울	(47.6)	경기	(16.9)	부산	(6.8)	서울	(45.4)	경기	(16.0)	부산	(6.7)

표 10. 시도별 경력직 노동력 지역 간 이동에서 서울·수도권과의 상호 연계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과의 연계	—	31.8	27.4	42.3	28.2	39.2	21.9	62.2	40.8	32.1	29.2	33.7	22.7	22.5	22.5	46.5
수도권과의 연계	58.6	42.4	38.7	81.3	44.3	56.3	31.5	72.0	73.7	62.0	63.1	58.2	40.0	37.7	34.3	66.0

역 간 이동에서 미치는 영향력 또는 상호 연계의 크기를 탐색하면, 적게는 울산이 서울과 21.9%, 수도권 전체와 31.5%를 나타냈고, 대부분 서울과 30% 이상 수도권과는 40% 이상이었다. 특히 광역시 중 대전과 도 지역 중의 강원, 제주 서울과 약 40% 내외, 수도권 전체와는 56.3-73.7%의 연계를 가지고 있었다.

5. 요약과 결론

이상의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에서 2011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우리나라 전체 노동 시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38.5%에서 42.5%, 그리고 임금근로자 대비 57.9%에서 61.4%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다시 시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 고용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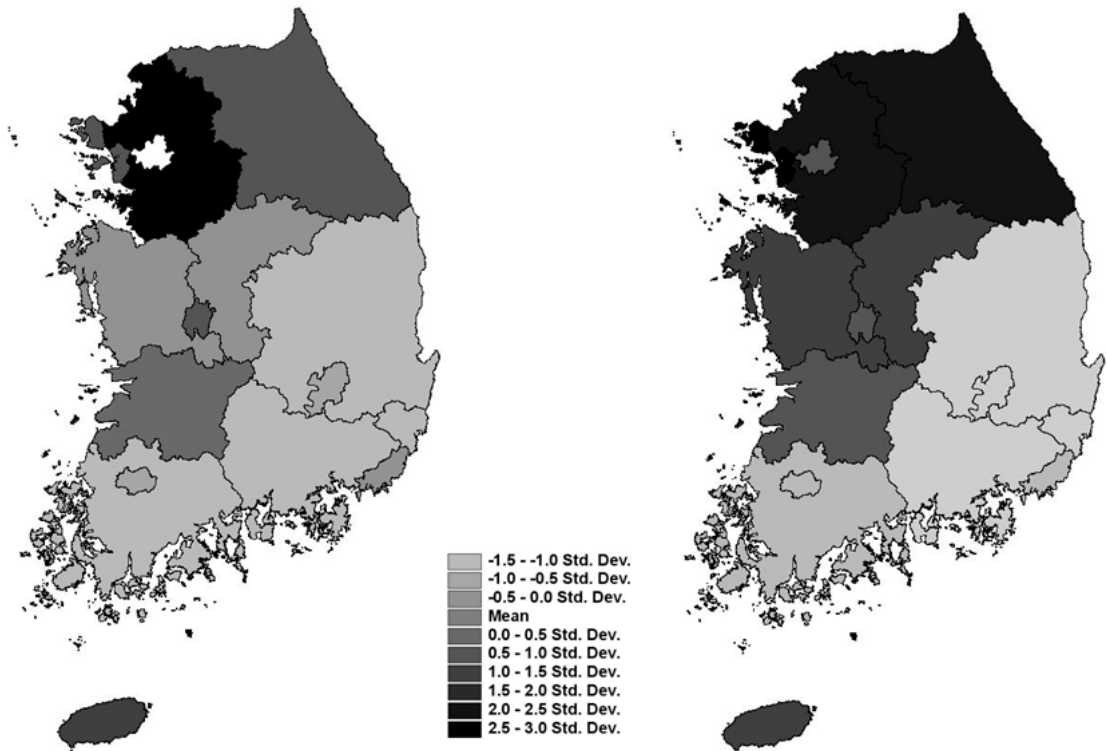


그림 5. 시도별 경력직 노동력 지역 간 이동에 있어 서울(좌) 및 수도권(우)과의 상호 연계

험 가입자 대비 33.9-35.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서울은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의 90.0-94.1%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시도는 38.8%에서 63.8%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차별화된 노동 시장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매년 증가한 고용보험 가입자를 신규와 경력직으로 구분하면, 경력직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당해 연도 가입자는 2008년에서 2011년까지 51.6-55.7% 정도였고, 이들 중 경력직이 77.5-81.5%를 차지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매년 약 40.1-45.4% 정도의 경력직 노동력이 직장을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력직 노동이동에서 서울을 출발지 또는 도착지로 한 이동이 전체 이

동의 약 32.7%, 31.9%였고, 그 다음이 경기도로 19.9%와 20.3%였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 경력직 노동력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하였다.

셋째, 경력직 노동력의 이동권역을 16개 시도를 단위로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서울-경기 및 광역시와 이를 둘러싼 도 지역 간에 군집이 형성되고, 이후 단계에서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그리고 강원과 제주권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5+2 광역경제권과 유사한 형태로 군집을 이루었다. 광역경제권 사이에는 강원권과 충청권은 수도권과, 제주권은 호남권 그리고 대경권과 동남권이 상당히 밀접한 상호작용과 연계를 추정할 수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서울에 묶이고 있었다.

넷째, 동일 시도 내의 이동을 제외한 경력직 노동력 이동의 시도 간 또는 군집간 연계와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나머지 시도에 탁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시도별로 경력직 노동력이 유출된 지역 및 유입된 지역을 탐색하였을 때, 서울과의 상호 연계는 적게는 울산이 21.9%, 많게는 경기 62.2%, 제주 46.5%, 강원 40.8%였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를 합한 수도권과의 연계는 울산, 경남, 경북은 30%대였지만, 강원 73.7%를 비롯해서 충북, 충남, 제주, 전북 등은 60% 안팎을 나타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약 20.9%가 서울에 분포⁴⁾하였다. 그런데 고용보험가입자는 33.9%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것을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상용직을 상대적으로 ‘좋은’ 종사상지위를 의미하는 변수로 선정되고 있으며, 아울러 노동시간과 임금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안전망으로서, 더 나아가 일자리의 안정성, 소득과 관련하여 고용보험가입자 비율은 해당 지역 노동 시장의 질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경력직 노동력의 이동, 그리고 그 권역과 지역 간 연계, 상호작용을 종합해 고찰하면, 서울은 노동 시장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모두 다른 시도에 비해 차별화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직 노동력 이동에 있어서 단핵지역으로서의 서울이 나머지 시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하는 주요한 원인일 될 것이다.

이 연구는 O-D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직 노동력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기에, 우리나라 전체 노동력이동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또한 경력직 노동력 이동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요인들, 즉 이동 동기, 이동

자의 특성, 산업·직업적 차이 등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것이 이 연구가 가지는 분명한 한계이며, 향후 덧붙여야 할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주

- 1)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에 대한 명확한 법률, 또는 제도적 정의는 없다. 다만 통계청의 통계용어 설명에는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그리고 임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 2) 2004년부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일하는 일용직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포함)의 임시직도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3) 전년도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다음해에는 경력직 노동력 규모로 간주될 수 있다.
- 4) 201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25,099천 명, 취업자는 24,244천 명이었고,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5,252천 명, 취업자는 5,012천 명이였다.

참고 문헌

- 김진수·이종호, 2012,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3), pp.390-403.
- 이종상, 2000, 통행 O-D표를 이용한 지역 간 상호작용 분석, 국토계획 35(6), pp.155-165.
- 이종상, 2012, 시·도간 인적·물적 연계분석에 의한 광역권 설정, 국토지리학회지 46(3), pp.227-237.

이종호·김진수, 2012, 산업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4), pp.5701-584.

정인수, 2004, 지역 간 노동이동 연구, *노동정책연구* 4(1), pp.57-87.

최인덕, 2013, 고용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한국조세연구원, pp.43-79.

황덕순·전병유·고선, 2004, 고용보험DB를 이용한 피보험자의 직장이동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Conradson D. & Latham A., 2005, Escalator London? A Case Study of New Zealand Tertiary Educated Migrants in a Global City,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13(2), pp.159-172.

Fielding A. J., 1992, Migration and Social Mobility: South East England as an Escalator Region, *Regional Studies* 26(1), pp.1-15.

Findlay A., 2009, Escalators, Elevators and Travelators:

The Occupational Mobility of Migrants to South-East England,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35(6), pp.861-879.

교신: 이정섭,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전화: 063-270-4733, 이메일: yisup@jbnu.ac.kr

Correspondence: Lee Chung Sup, Institute of Rice, Life and Civiliz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61-756, Korea, Tel: 82-63-270-4733, E-mail: yisup@jbnu.ac.kr

최초투고일 2014년 1월 8일
수정일 2014년 2월 17일
최종접수일 2014년 2월 20일